

## 야고보서 1장

### 1. 야고보는 누구인가?

**주의 동생 야고보(갈 1:19, 행 12:17, 15:13-21, 21:18, 고전 15:7, 갈 2:9, 12):** 당시에는 야고보란 이름이 아주 흔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육신의 형인 예수를 하나님과 동급에 놓은 것(1)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음을 나타낸다.

그 외에 12제자 중의 하나인 요한의 형 야고보는 44년경에 헤롯 아그립바에 의해 순교했으며(행 12:2)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마 10:3)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다는 것밖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만일 그가 이 편지를 썼다면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했을 것이다.

### 2. 흠어져 있는 열 두 지파는 누구를 가리키는가(참고, 2:2, 5:7)?

**팔레스틴 주위에 흠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2:1)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으므로(1:2-4, 12-18)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2(회당) 5:7(이른비와 늦은비)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다만, 현재에 적용한다면 12이면서 하나인 이스라엘, 즉 온 세상에 흠어져 있는 하나 된 교회를 가리킨다.

### 3. '시험을 이겨내라! 참아라!'도 아니고 기뻐하라고?

**시험이 곧 시련, 연단이기 때문이다(2-3, 롬 5:3-4):**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현실보다는 그 현실이 가져다 줄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롬 8:18). 등산처럼, 힘이 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힘든 것 자체를 즐긴다. 힘들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곧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 인생이 시험의 연속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불평하고, 짜증낼 이유가 없다. 합격하고 나면 다음 단계의 시험이 있고, 떨어지면 재시도 쳐야 한다. 가장 한심한 사람은 '언제 시험쳤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치러야 할 시험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시험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 4. 온전한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이 요구되겠지만 인내없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인내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데에 필수적이다(마 5:48). 스스로 자제할 줄 모른다면, 성질나는 대로 행동한다면 결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온전'이란 성숙을 뜻한다. 마치 곡습공이 훈련과정을 다 마치고 정식으로 일꾼이 되는 것처럼.

**구비:** 모든 조건에서 완전함(제사장이나 희생제물에서 요구되는 자격을 가리키는 말이다)

### 5. 야고보서에는 윤리적이라고 할 만한 교훈이 많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시험에 관한 것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이런 저런 시험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 6.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 설마 학교 성적이 나쁜 사람을 가리키지는 않겠지?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시험에 굴복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시험을 이겨내라는 의미이다. 시험에 대해서 말하다가 바로 지혜를 언급하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 7. 선생님들이 강의 중에 가급적 쓰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알았니?' 하는 질문이다. 어떤 분들은 말끝마다 사용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예'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지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이나 부모가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무심코 하기 쉬운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그것도 모르냐?:**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지혜가 부족하여 묻는 아이들에게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말이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배우자.

### 8. 예수님께 병을 고치러 간 사람들은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았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 보기를 소원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고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다. 불구경 갔던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향을 떠난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

### 9.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비유권대 선생님께 '설마, 선생님인들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하고 묻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

**아는 것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 야단맞을 가능성이 높다:** 믿음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이런 수준 아니겠는가! 두 마음을 품은 자요, 두 주인을 섬기는 자이다.

10.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은 무슨 의미인가?

**정합이 없다:** 행동이 불안정하고 흔들린다. '밀고 구했는데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바로 정합이 없는 불안정한 마음이다. 찬송가에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라고 하는 것은 역동성, 곧 생기발랄함을 가리킨다.

11. 높고 낮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재물 같다.

12. 부한 형제가 자신의 부유함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은 순간적이기도 하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곧 사라질 것 대신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화무십일홍이라든가? 모란이나 목련이 아름다우나 생명이 길지 않다. 어떤 시인은 이들이 푹푹 떨어지는 장면을 슬프게 노래했다. 그나마 국화, 백일홍, 무궁화는 오래 가서 다행이다.

13. 낮은(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높은 게 있어야 자랑하지?

**영원한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한다. 부한 자가 낮음을 알고 낮은 자가 높음을 아는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

14. 시험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12)?

**여기서 인정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의 어려움보다는 상급의 크기가 더 무나 크기 때문이다(롬 8:18). 도박꾼들은 확률에 목숨을 건다. 손해 볼 가능성이 약간인데 이익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면 당연히 배팅을 한다. 이런 기회를 즐긴다는 말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란 영생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땅의 일시적인(평생일지라도) 고난과 비할 바가 아니다.

15. '시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다 같은 뜻이 아니다. 다른 의미를 가진 것 하나는?

12절의 시험(췌이라스몬)은 연단이란 뜻이고 나머지(췌이라조메노스)는 유혹이란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16.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은 어느 구절과 대조를 이루는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13)** 하나님도 옴, 아브라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사도 바울을 시험하셨는데? 망가뜨리고자 함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시험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시험', '연단'이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또는 특별한 뜻이 있어서 주시는 연단이다. 상을 주기 위한 시험이다.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치를 때마다 자신에게 상을 주려고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17.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 말씀은 어느 구절의 반복인가?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14)** 독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봐도 독밖에 더 만들겠나? 독이 들어가면 죽기밖에 더 하겠나?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욕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욕심을 잉태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욕심이 낳은 죄를 키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말라(=시험에 빠지지 말라). 더구나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속지 말라(16). 자신이 잘못하여 어려움에 처해서도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한 고난도 참으셨는데...' 라는 성도가 적지 않다.

18. 하나님에게는 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을까?

**그 분이 빛의 근원이니까:** 빛들의 아버지란 빛(해, 달, 별)을 창조하신 분이시란 말이다. 그러니 그 빛의 지배를 받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회전한다는 것은 태양의 방향에 따라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19. '한 첫 열매란 '일종의 첫 열매'란 뜻이다. 인간이 과연 피조물의 첫 열매인가?

**여기서 첫 열매란 같은 급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뜻이다:** 가령 수확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모든 수확물의 대표이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조물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면 모든 피조물도 함께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든 사람(여기서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뜻이다.

20.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성내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질 급한 점에서는 동일하다. 급하게 성내는 사람은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때로는 오해로 화를 낸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성질도 잘 내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더 더욱 그럴 것이다(21)

21. 성내는 것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더러운 것(넘치는 악)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2. 성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성이 안날 리가 없다. 어떻게 해야 성이 안 나거나 더디게 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성질도 될 나쁜 법이다. 이미 마음에 심고 도를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이 말씀에 대한 실천을 의미한다.

23.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는 일인가?

결과적으로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 결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24.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했으면 그 감격이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 기도원이나 부흥회에서 받은 은혜가 오래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감격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오래 지속된다. (실제로는 말씀보다는 일시적인 분위기에 흥분했을 가능성이 크다.) 말씀에 대한 감격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쉽게 잊혀진다. 그것은 마치 이론을 배운 선수가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거울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현상과 같다. 만약에 거울로 본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훨씬 잘 기억하지 않을까? 더구나 옛날 거울에 비친 모습은 희미하여 제대로 보기도 어려웠으니까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25.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마음에 심고 도(21) 들은 말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율법, 즉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분의 말씀을 가리킨다. 구약의 율법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율법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요 8:32)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바이다.

26.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데 무슨 복일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됨:** 결과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24, 25)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다. 왜? 구체적인 성취야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과정에서 말씀이 살아 있음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27.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는 것은 곧 무엇과 같은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자기 마음을 속이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다(22, 26) 혀를 재갈 먹이지 않는 것이 곧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며 급하게 성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28. 혀를 재갈 먹이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왜 헛것일까?

말만 경건한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경건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의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거룩한 생활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이다.

## 야고보서 2장

1.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신의 실패한 경험 때문:** 예수를 육신의 형님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예수님을 외모로 취한 것) 나중에 보니깐 영광의 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분이 실제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음을 믿는 우리가 겉보기에 약하고 무능하다고 경시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89절이 정답이므로 이런 설명은 썩 좋은 답은 아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한 성경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보다 더 잘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이 주께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느냐?

2.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원어상 2절 서두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믿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라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십계명의 서문을 연상시킨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어 자녀로 삼았으니(십계명의 서문)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다.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다.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했다고 해서 믿음을 경시하거나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오해이다.

3. 야고보서를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면?

**회당(시나고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유대인들과 완전히 결별한 상태는 아니었다. 유대교의 일파 정도로 생각했었다.

4.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2-4)?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구별(=차별)하지 말라(4)** 이것이 곧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5.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성도를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라면 어디에 앉혀야 하나? 발등상 아래 자리에 앉혀버려?

**그것도 차별이다. 역차별도 차별이니까:** 모두를 다 좋은 자리에 앉히면 된다. 좋은 자리가 부족하면 귀하게 여기면 된다.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없이 모두 귀하게 대하라는 말이다.

6.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교회는 누구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할까(5)?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으므로 우리도 그래야 한다(5):** 초대 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나 말이다.

기본적으로는 구별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지만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반드시 평등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벌금을 선고한다고 해서 평등한 것은 아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더 가혹한 징계가 된다. 가난한 자는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교회가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난한 자를 더 돌보아야 한다. 교회가 영혼보다 재물에 더 관심이 있으면 타락했다는 증거다. 책이나 옷을 무게로 파는 것과 비교해보자. 심혈을 기울인 책을 무게로만 따진다면? 어떤 저자는 자신의 책이 하류 연애소설과 비교되는 것조차 거부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외모로? 이것은 악한 생각이다(4). 대접하거나 영접하는 면에서는 구별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어야 한다.

7. 이 부자는 누구길래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며 아름다운 이름을 휘방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들이 돈의 위력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혔음에도 여러분들이 돈 문제로 형제를 멸시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당시에 돈과 권력을 지닌 자들은 소위 사투개인들이다. 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도 돈 문제로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돈 문제에 초월해야 핍박한 자들에게 당당한 것 아니냐?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돈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대체로 그런 것이다. 부자는 돈의 위력으로 그렇게 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다. 가난하면 화해할 일도 부자는 자신이 가진 부를 과시하고 싶다.

8.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최고의 법(왕의 법)인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레 19:18의 인용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서는 온 율법(모세 오경과 선지자(선지서)의 대강령이라고 하셨으니 (마 22:39 법 중에 법이라고 할 만 하지 않은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바로 이 말씀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9)? 이 말씀이 율법의 최고한 법인데 이것을 어겼으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9. 율법을 다 지키다가 겨우 하나 어기면 100점은 아니라도 90점은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과 관계된 율법을 다 지키고, 사람들과 관련된 중요한 것 다 지키고, 가난한 자를 조금 차별했을 뿐이라면 97점은 될텐데...

**율법을 자기편의 대로 합부로 해석하거나 가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는 율법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지녔다고 지적하는 셈이다. 율법은 일점일획이라도 중요하다(마 5:18). 마음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신 4:2, 12:32, 계 22:18-19). 그런데 제멋대로 하나님을 뺀다는 것은 율법을 합부로 재단하는 것이며 율법 전체를 무시한 것이다. 율법은 그렇게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태도는 율법 전체를 가볍게 보는 것이며 동시에 율법을 주신 분을 가볍게 여기는 셈이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실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이런 사람은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으므로).

길게 설명할 것 없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형제를 차별했다면 율법을 다 어긴 자다.'

10. 자유의 율법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하던데 왜 심판 받을 자처럼 행하라고 하는가?

자유를 주는 율법이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예수의 복음이다(요 8:32).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심판받을 자처럼'이라는 말은 심판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이다. 심판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속박)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기쁨(자유) 때문에 기꺼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부른다.

11. 공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흠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기도문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심판이 없는 게 아니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큰일 났네! 두 말씀의 핵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흠을 베풀고, 죄를 용서하라는 말이다. 예수 믿는 자를 심판하거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공흠을 행하라고 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공흠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려는 마음도 없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자이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용서해주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12.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롬 5:1)고 말할 때의 믿음과 14절의 믿음은 다른가?

**14절의 믿음은 자칭 믿음'이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24절의 믿음도). 자칭 위인을 영어로 a big noise(소음)라고 한다. 자칭 위인은 위인이 아니다. 같은 방식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17)라고 말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행하지 않는 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13.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에게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밥 먹어)'고 하는 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다. 가령, '옛날에 우리는 밥도 못 먹었다'고 하자 아이들이 '밥이 없으면 라면이나 빵이라도 먹지?' 한다. 이런 대답은 소용없는 정도를 넘어서 철없는 말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것보다 더 나쁘다. 도와줄 능력을 가지고도 돕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고 논쟁을 하는 것은 야고보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14. '행함이 없는(=행함과 분리된) 믿음이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면,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믿음대로 행할 능력이 바로 생기는가?

최소한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차츰차츰 나아질 것이지만 최소한 행하려는 의도나 노력은 있어야 옳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하는 데에서(21) 해답을 찾아야 한다. 아브람이 믿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믿고 행하기까지 오랜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다.

15. 귀신들의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관계인가?

**같은 것이다:**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일 뿐이다. 단순하게 아는 것이다. 아무런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23, 대하 20:7, 사 41:8). 그런 관계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행이다.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다.

16.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예를 든 것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사건이다. 행함이 부족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

**아브라함의 말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렇게 행함으로 가득찬 삶은 아니었다. 오랜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에는(마지막에) 그렇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다.

17. 누군가가 말했다, '믿음이란 외줄타기 명인의 등에 올라서 함께 외줄을 타는 것'이라고. 정말 그 정도는 돼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일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동안은 전혀 믿음이 없었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기에 이전에는 믿음이 어땠을까? 부인을 누이라고 말할 때는?

여린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는 것이지 믿음이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고 해도 믿음이 다 같은 모양은 아니다.

18.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때(창 15:6, 16:3)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적어도 30년).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도 있다.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함께 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것을 야고보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믿음이 먼저고 행함이 후에 응하였다(23):**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한(행함으로 의롭게 된) 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지 대략 30년 후이다(아브라함이 85세에 하갈을 취하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고, 짐을 져 나를 정도로 자랐을 때). 믿음이 자람에 따라 행함도 그렇게 자라간다. 반면에 우리는 출발점부터 믿음에 관한 어른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이 글의 대상이 바로 이미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19. 담배나 술 때문에 교회 출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술 마시면서, 담배 피우면서 교회에 나오세요, 술이나 담배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했다니 그 말을 들은 장로가 그날부터 술, 담배를 시작했다고 치자. 이걸 치리감이다. 이 말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논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기존의 신자가 들고 자신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출발점을 가리키는 말이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는 말씀은 기존 신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여기서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말로만 믿노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니라'는 의미이다.

20. 기생 라합이 정말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일까?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는데 무슨 의미를 다느냐고? 의미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좀더 정밀하게 살펴보자는 뜻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배신하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두려움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살아남기 위한 이런 노력도 '행함을 수반한 믿음'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이다.

21.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염두에 둔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든 생각 가진 사람들(믿음없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포함)이지만, 야고보는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강조할 필요는 없다. 바울은 초신자에게 관심을 두었고 야고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바울은 회심에 대해서, 야고보는 성숙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천국가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고 한다.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는 셈이다. 믿는데 왜 행동이 따라주지 않느냐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믿는다고 바로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22. 한 단어가 반드시 하나의 사물이나 개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많다. 가령, '그 친구 영 못 쓰겠더군' 이 문장의 '친구'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가 아니다. 친구가 아닌데 친구라는 단어를 쓰는 셈이다. 본문의 믿음이란 단어도 이와 같이 쓰였다. 크게 둘로 나누면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는 믿음'이다. 14-26절에 사용된 믿음이란 단어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더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 14 / 17, 18, 20, 24 / 19 / 186, 22 / 23 / 26 >

**자칭 믿음(14), 행함이 없는 믿음(17, 18, 20, 24),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믿음(19), 행함이 따르는 믿음(186, 22), 초보적인 믿음(23), 죽은 믿음(26)** 위의 예에서 친구가 아닌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듯 믿음이 아닌 것을 편의상, 혹은 외형상 믿음이라고 말할 뿐이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과 초보적인 믿음이 믿음이다. 편의상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했지만 성경은 이런 믿음도 분명히 믿음이라고 인정한다 (가령, 출애굽기 3, 4장에서 순종하지 않는 모세처럼) 마치 어린 아이라도 완전한 인간인 것처럼.

다른 예로 바울의 행함은 구원의 전제조건으로서 행함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서 행함이다. 같은 단어 '행함'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이것이 우리가 쓰는 언어의 한계성이다. 언어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 야고보서 3장

1. 많은 사람이 선생 되지 말라고? 괜히 이런 말을 해서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가?

선생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제대로 선생 노릇 하라는 말이다.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자를 대단히 존경했다. 아마도 선생 되기를 원한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다. 선생으로서 해야 할 일의 막중함보다는 선생이라는 권위나 명예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동시에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한 상징으로 선생을 언급했을 것이다.

‘취직도 어려운데 목사나 할까? 취직이야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어서 끔찍한 표현이 많이 나온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공부하려거든 학교 때려 치워라’는 말의 본뜻은 학교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다. 제대로 공부하라는 말이다.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학교 그만두라 했잖아 하면서 정말 그만두면 진짜 얻어터질지도 모른다.

2.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던데 믿는 선생님도 심판이 있네?

심판이라기보다는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다. 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눅 12:47-48)과 마찬가지로. 그게 무서워서 달란트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배우는 게 우선이다.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윤을 남기면 당연히 주인의 것이다. 그것을 종에게 주셨다. 한 달란트를 현재 화폐로 몇 억원정도(금 32Kg)로 상상해보라. 얼마나 큰 상급을 준 것인지. 십계명의 1000대와 삼, 사대도 마찬가지다. 비유권대 잘 하면 상급을 백만원 주고 못하면 벌금으로 삼, 사천원 내라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다.

3. 야고보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실수하는 인간:** 신앙의 유무나 믿음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인간은 실수를 하는 존재이다. 실수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주의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야고보는 이런 미성숙한 성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2)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썼다.

4. 야고보에 따르면 선생은 물론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흔하고도 심각한 실수는 무엇인가? 그게 왜 그렇게 심각한가?

**말로 하는 실수:** 별 밀전이나 준비도 없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반면에 결과는 치명적이거나 심각하기도 하다. 대상이 신체나 물체가 아니고 마음, 영혼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특히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선생은 더욱 더 그래야 한다.

5. 온전한 사람이란 의인이란 뜻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다. 야고보가 말하려는 요점에 주의한다면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지닌 사람(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로서 형제를 실족케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6. ‘재갈, 키, 혀, 작은 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작은 부분이면서 전체를 좌우하는 능력을 가진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으레 그러려니 하고 잘 놀라지 않는다. 가령, 몸 전체를 뒤흔드는 꼬리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 꼬리는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의 혀가 이런 위력을 지녔다는 말이다. 이런 혀를 함부로 놀리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5절의 ‘많은 나무’는 ‘큰 수풀’ 곧 산림이란 뜻으로 볼 수 있다. 큰 산을 태워버린다는 의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작은 것으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굴레 씌우리라, 제어하며, 운전하나니). 바로 다음에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가 이어지지만 이 부분에서는 길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

7. 5절의 ‘많은 나무’는 ‘큰 수풀’ 곧 ‘산림’을 의미한다. 혀는 큰 산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이기도 하다. 산 하나를 홀랑 태워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산에 갈 때 이 불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말겨 두고 가야지,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다:** 형제들을 대할 때 혀를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함부로 ‘교만해서 그렇다’거나 ‘귀신이 씌었다’거나 ‘죄가 많아서 그렇다’거나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인 모양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8. 혀는 생각과 다르게 놀기도 하고, 생각없이 설치기도 한다. 사과하거나 화해하고 싶어서 만났는데 의도와 다른 엉뚱한 말이 튀어나와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 웃자고 한 마디 했는데 웃기는커녕 원수가 되기도 한다. 결국 혀로 인하여 엄청나게 고통을 겪기도 한다. 그런 사람에게 혀는



( )이다.

**불의의 세계:** 혀가 '악의 덩어리' 혹은 '악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이다. 재갈 먹이지 않으면 이렇게 위험하다. 6절의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는 말은 '자신도 지옥불에서 살라지느니라'는 말이다.

9.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 해물이 어떤 점에서 혀와 대조를 이루는가?

**길들일 수 있는 것과 길들일 수 없는 것:** 짐승을 길들이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일이다. 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길들이라는 말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2)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

10. 혀와 무슨 원수를 졌기에 이렇게 심한 말을... 혀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6-8)?

**불(지옥불), 불의의 세계, 조련 불가,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 혀가 지닌 파괴력을 강조하는 말이다. 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므로 말로 형제를 실족케 말라는 것이다. 야고보의 독자들(미성숙한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1:19-20, 1:26) 이렇게 강하게 말했을 것이다.

11.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사람을 저주하지 못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2. 혀는 썸이나 무화과나무와 비교할 때 어떤 불가사의한 능력을 지녔는가?

**불가능한 일, 즉 동시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빛은 알갱이인가, 파동인가? 양립할 수 없는 두 성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빛이다. 현재도 불가사의한 일이다. 우리 혀가 그렇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 그 정도로 기묘한 일이다.

13. 야고보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무화과나무이면서 감람을 맺느냐? 짠 물이 단 물을 내는 것을 보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냐?' 이 질문들의 요지는 무엇인가?

**너희가 입에서 짠 물을 내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저주의 말을 하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치 율법의 하나를 무시하는 것을 보면 전체를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좋은 말은 전부 영터리다.

14. 함부로 저주의 말을 하는 혀에 대해서 신랄한 비난을 퍼붓더니(2-12)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다(13).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분위기를 전혀 다르게 만드는지 혀에 관한 부분과 대조적인 핵심 단어를 지적한다면?

**온유:** 지혜있는 자는 온유한 자이다. 함부로 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저주하지 말고 지혜있는 말로 온유함을 나타내라. 어설픈 지혜를 가진 사람, 즉 헛똑똑이가 시끄러운 법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떠들지 않는다(잠 15:1).

15.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로 3장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혀에 대해서 잔뜩 열을 내다가 이제 지혜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은 이 지혜가 선생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선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하고, 온유해야 한다:** 혀에 대해서 열을 낸 것은 선생될 자가 선생 노릇을 잘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썸이다.

16. 자기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인내와 순종보다는 반항과 싸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더 많다:** 싸우자고 선동하는 것이 순종하거나 용서하자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먹혀들어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남자가 싸울 때는 싸워야지' 웬지 이런 말은 멋있어 보인다. 그러나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고만장한 인물이 창세기 4장의 라멕이다.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만 알 수 있는 일이다.

17.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물론 공부 잘 하는 머리도 아니다. 어떤 지혜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위로부터 난 지혜(17)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지혜를 말한다(잠 9:10, 사 33:6)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 지혜가 아니란 증거이다. 장사하는 사람이 교회에 헌금하고, 성당에도 헌금하고, 절에도 시주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18.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서로 대조해보라.

**세상 지혜:** 시기, 다툼, 자랑, 거짓 요란, 모든 악한 일.

**위로부터 난 지혜:** 온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음      화평, 의의 열매.

19. 야고보의 말은 ‘말에 재갈을 물리자’는 말이다. 말 말이가, 말 말이가?

**말:** 국어사전에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적어도 10개 가까이 나온다. 이 질문과 답에는 겨우 세 개 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니 너무 야단치지 마시라(2, 2, 2, 1, 3, 2, 3, 2).

### 야고보서 4장

1. 야고보의 독자들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만한 표현들을 본문에서 다 찾아보자.

싸움, 다툼, 정욕, 욕심, 살인, 시기, 간음, 세상의 벗, 하나님의 원수, 교만, 죄인들, 더러운 손, 두 마음을 품은 자, 비방, 판단, 허탄한 자랑, 등이 이들의 특징이다. 야고보는 이들이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데 이들의 현실은 칭찬보다는 야단맞기에 딱 알맞다. 믿기는 하지만 행동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책망하는 것이다(2:24).

2.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움(지속적인)이 있을 수 있으며 다툼(개별적인)이 일어났는가?

**욕심 때문에(1):** 정욕이란 쾌락에 대한 욕망, 즉 욕심이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의 욕망(자기 주장)이 앞서 있으니 싸우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만(7)이 해결책이다.

3.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인가(1)?

**지체끼리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지체란 자기 신체의 일부를 가리키는 말인데 비유권대 형제들도 지체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은 제 살 뜯어먹기다.

4. 다음 구절(2절)에 심표를 찍는다면 어디가 좋을까?

<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

**'살인하며' 앞과 '못하나니' 뒤:** 만약 '살인하며' 뒤쪽에 한번 심표를 찍으면 실제로 살인을 행한다는 뜻이다(살인하고, 싸운다는 뜻). 아무리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그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정답처럼 앞쪽에 찍으면 실제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시기함을 강조하는 표현이 된다(얻지 못하고 싸운다는 뜻).

5. 성도들이 하나님께 얻지 못함은 무슨 까닭인가(2, 3절)?

**기도하지 않고 욕심내고, 시기하기 때문이며(2), 기도하더라도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3 시 34:15, 145:18, 잠 15:29, 눅 18:14, 요 5:14):**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책망하지(2:24).

6. 간음에 대해서는 주로 남자들을 책망하는데(마 5:28)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여자들이 이런 일에 앞장섰을까(4)?

**문자적인 간음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대체로 '간음하는 자들이여'라고 번역하고 있다. 세상과 벗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7. 5절의 '사모한다'의 주어는 무엇, 혹은 누구일까? 성령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결과적으로 성령이 시기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시기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출 20:5, 34:14, 신 4:24, 5:9, 6:15, 32:21, 수 24:19) 문법적인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굳이 문장의 구조를 따지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the spirit he caused to live in us, NT4)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혹은 성령께서) 이렇게 사모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세상과 벗이 될 수 있느냐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8. 세상을 벗하고 사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기(질투)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께 순복하라(7),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8):** 야고보의 독자들은 확실히 문제가 많았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야단 칠 수밖에 없다. 믿기는 하지만 행동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믿음만으로 아니니라'고 하는 것이다. 초대 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은 어디 가고?

참고로 초대 교회의 변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눅 9:46(제자들의 갈등) 행 4:32(자기 재물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음) 고전 6:1-8(법정에 고소)

9. '슬퍼하며 애통하며 올라'고 한다. 웃으며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왜 이러는가?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웃음과 즐거움은 영양가가 없기 때문이다. 계속 그러다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라는 것이다.

10. 독자들에게 대한 호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너희(1), 간음하는 여자들(4), 죄인들(8), 형제들(11):** 야단칠 때는 치더라도 변함없는 형제이다.

11.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가?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자.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했지, 비방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 혹은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 법이 잘못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을 주신 이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이다.

12.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판단치 말라) 율법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은 그렇다고 지적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판단치 말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자. 재판하는 자의 심정이 아니라 간청하는 자의 심정으로 그리 하면 될 것이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도 말자.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롬 14:4)?

13.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일년 계획을 세우다니(13)? 그러면 10년이나 20년 후의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저축, 보험, 노후 설계를 다 집어치우라는 말인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말하라는 것이다(15).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행하는 일이야말로 야심 안개이다. (신 8:17-19)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4. 야고보가 이들을 향해서 굳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17)?

**이미 무엇이 선인줄 알기 때문이다(17)** 차라리 모른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을 것이다. 그런데 믿으면서, 무엇이 선한 일인줄 알면서 행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다.

## 야고보서 5장

1. 모든 부자가 다 고생이 임하여 슬퍼할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윗, 솔로몬, 욥은 대단한 부자였지만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부자에게만 그럴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4, 6) 즐기는 부자들(5)** 샅을 제대로 주지 않고 모았고(4) 옳은 자를 정죄하였기 때문이다(6, 정당한 요구를 불법으로 여겼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도하는 자들이 지주를 적으로 간주한 이유도 이들이 소작인의 샅을 갈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작인들이 어떤 비율을 뒀을 나누면 되는 걸까? 기업이나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어느 정도가 정당한 것일까? 좋은 부자 되기가 무척 어렵겠다.

2. 부자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먹었다는 말은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말인데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과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의 수명이 다를까?

**다르다:**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녹이 쏠지 않고 도적이 들지 않는다(마 6:20).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말도 있다. 재벌 2세나 3세가 선친의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체로 그런 셈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면 재산을 관리하는 능력도 함께 자란다. 그래야 오래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3. 금과 은이 녹이 쓴다고? 아닌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이 사라질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재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면(=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녹 쏠지 않는 것도 녹이 쓴다는 말이다. 부당하게 모은 재물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허무하게 사라질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4. 이 녹은 무슨 녹이며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녹(금과 은에 생긴 녹)이 불의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이다. 그러면 불에 타버리듯이 부자들의 살을 먹어치우리라는 것이다. 부자들에게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라는 말이다.

녹도 일종의 산화작용이지만 굉장히 느린 속도이다. 그런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란다(산화작용의 속도가 급격하게 빠른 것이 불이다). 애지중지 하던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며, 자신도 또한 그 불에 살라질 것이다. 재산과 함께 망할 것이라는 말이다.

5. 말세에 재물을 쌓다니?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인가?

**때를 잘못 택했다:** 지금이 어느 켜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잔뜩 쌓아두었는데 내일이 종말이라면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4:13). 내일이 도살의 날인줄 모르고 오늘 부지런히 먹고 살을 찌운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결국 비유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 허무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6. 추수한 자들이 왜 우는가?

부자들이 추수한 자들의 품삯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적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항의를 아마도 부당한 방법으로 정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6). 억울하지만 법에 호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보다.

7. 품꾼들을 올리면서 모은 재산으로 사치하고 연락(宴樂)하면 어떤 벌을 받을까?

**도살(5):** 가난한 자들을 올리면서 모은 재산으로 사치하고 연락하는 것(원어상으로는 '음탕하게 살다')은 도살하기 위한 짐승을 살찌우는 것처럼 스스로를 살찌우는 일이다. 누구 좋으라고? 여기서 사치와 연락은 방탕한 삶을 가리키는 말이다.

8.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형제들이 인내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부당한 부자들의 잘못을 곧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고 견뎌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까운 장래의 일인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자(아래 질문을 참조)

9. 누구처럼 인내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예를 든다면? 또, 이들처럼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부처럼,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인내하면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농부), 그때까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선지자들, 욥)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욥)는 말이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농부처럼 때를 기다리며,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는 말이다. 빨리 끝장을 내지 않고 왜 이렇게 더디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 이해하렴(11)! 그렇게 기다리는 바람에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가!

10. 이른 비는 10, 11월에 오는 것이고, 늦은 비는 4, 5월에 오는 비이다. 이름이 거꾸로 붙은 것 아닌가?

10, 11월이 파종기이고, 3, 4월이 결실기이기 때문이다. 지중해성 기후가 우리와 반대현상을 보인다면?

11. 서로 원망하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셈이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형제를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을 형제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원망한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했다는 뜻이며, 그런 판단은 심판자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말이다. 심판자가 계심을 믿고 그 분에게 맡기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손을 대지 않았던 다윗이 좋은 예이다.

12. '맹세하지 말라'는 것과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같은 표현이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맹세하여 지키지도 못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이다.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은 거짓 맹세로 얼버무리지 말고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셈이다.

13.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없을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김이 되기 때문에 맹세를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하는 것은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나님은 두렵지만 하늘이나 땅이야... 맹세의 대상에 따라 등급이 달랐다(마 23:16-18).

14.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고,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행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원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두어야 한다. 하나님 때문에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이 항상 기억하던 말 *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 아닐까? 제 잘난 탓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다.

15.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병들면 병원에 갈 생각하지 말고 장로들을 청하든지, 아니면 영험한 기도원으로 가라는 말인가?

기름을 바르며(약을 쓰라는 뜻이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약이나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약이나 의술을 의지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인 것은 아니다.

16.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가?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을 구원하게 한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15).

17. 죄를 서로 고하며? 고해성사가 그렇게 해서 생겨났을까? 초대 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에는 죄를 공중 앞에서 자복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셨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문제가 있더라. 공중 앞에서 고백해서는 안 되는 죄는 어떤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죄의 고백은 자제해야 한다. 가령, 간음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나 가족들에게 치명타가 되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

18.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은 자기가 기도하기보다는 꼭 목사님의 기도를 받거나 은사 받은 분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옳다는 말인가? 그런 의인의 예로 든 사람이 누구인가?

**아니다. 예로 든 의인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그런 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믿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누구라도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이다. 엘리야가 그런 의인이라고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지 않았느냐는 말이다.

19. 왕상 18:1에 '제 3년에'라는 표현이 있다. 비가 오지 않은 기간이 3년인가, 3년 반인가?

왕상 17장의 전체 내용이 3년 반에 걸친 것이라고 보면 된다(눅 4:25).

20. 왕상 18:1, 42-45절을 읽고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절히 기도함:** 엘리야의 간절함만 배워서 안 된다.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아주 간단하다. 간절함이 기도가 응답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야고보가 간절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이다.

21.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거나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당연한 말 아닌가?

영혼을 구하는 것이나 죄를 덮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내가 했다'고 하실 거라는 말이다. 단 12:3(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에서 약속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다.